

EUNSEOK CHURCH MATHETES

나를 사랑하시네

한수지

나를 나를 진정 사랑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네.
나의 모든 연약함도
나의 모든 시련도
이제는 모두 사라지리라.
나를 사랑하시리라.

담대함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그 긴 침묵에
나 의심하며 울고 있을 때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춤을 추게 하시네.

나를 나를 진정 사랑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네.

하나님의 그 긴 침묵에
나 의심하며 울고 있을 때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춤을 추게 하시네.

슬픔이 변하여
나 춤을 추게 하시네.
흑암에 있을 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나를 나를 진정 사랑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네.

나를 나를 진정 사랑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네.

제24권

45
2016.11.6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나라(사55:8)

은 석 교 회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38길 7-12

☎ 421-9049 010-3323-9049

<http://www.onlycross.net>

측량을 마친다

겔 42:15-20

이사야서 49: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는 말을 하고 5절에서도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나를 택하였음이니라”** 고 말하는데 1-7절까지의 말씀들은 ‘선택’ 과 ‘부르심’ 두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처럼 하나님의 백성 됨은 선택과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의 독특하고도 신비스런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됨이 곧 구원과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선택과 부르심이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외에 그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선택과 부르심을 독특하고도 신비스러운 방식이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세상적 사고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도 수긍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인간의 외적 행위와 내적 성품 등을 보시고 결정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적 사고와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태중에서부터 부르셨고 복중에서부터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말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태중에서부터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중에서 결정된 선택과 부르심의 방식은 인간의 행위와 성품이 구원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행위는 물론이고 그 어떤 성품이나 인격이 형성되기 전의 선택과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담 이후의 인간은 오직 죄의 본성을 가진 자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는 그 어떤 행위와 성품도 선한 것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부르심이라는 방식으로만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직시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서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에 의해 작성된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강조한 것처럼 믿음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생각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선택과 부르심은 사도 바울이 아قام과 에서를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롬 9:11절에 보면 이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된 것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아قام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아직 나지도 않고 행위도 없을 때 사랑하고 미워할 자로 구분되었다면 하나님이 미

워하시는 에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는
가라는 의구심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
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예서보다는 아람이 더
성품이 아비하고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항
상 속이는 쪽은 아람이었고 예서는 속는 입장
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이후의 인간은
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행실
이나 성품과는 무관하게 악한 존재일 뿐입니
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각에서는 선한 것이
라 해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악하다는 것입니
다. 왜냐하면 선과 악은 자기중심이나 하나
님 중심이나 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 을 외치긴 하지만 그
것은 그냥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신앙적입니
다’ 를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는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로 집중되어 있을 뿐임을 생각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받아들이십니까? 단
지 성경 이론이나 교리적 지식의 차원에서 받
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선택과 부르심이 아니면 구원 될 수 없는지
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셨고 받아들이신다
면 이제 필요한 것은, 굳이 선택과 부르심이란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뜻을 아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처럼 죄 아래
있는 세상을 심판해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원수 된 자들 속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
하는 길로 가는 백성 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 본 완성의 의미로 나
타난 새로운 성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전 지역의 바깥 둘레
를 측량하는 것으로 성전 측량이 모두 마무리

되는데, 측량된 바깥 사방 둘레가 각기 오백
척이라고 합니다. 오백 척은 약 260미터쯤 된
다고 하니 적지 않은 크기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
이가 오백 척이며 너비가 오백 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고
말합니다.

담의 역할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
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담이 있음으로 해서
거룩의 세계와 속된 세계가 구별되어 차단되어
있으며 따라서 혼합될 수도 교류할 수도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성전 밖의 세계는 속된 세계, 즉 부정한 세
계입니다. 이 세계는 담으로 인해 성전 안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성전 안의 세
계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상상을 따라
입맛에 맞는 성전 안의 세계를 만들어 내게 됩
니다. 이것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새로운 성전은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성
전에서 보지 못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
에서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
의 손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
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성을 보이는 일에 힘
쓴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신앙의 실패 이유입
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으로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성전을 바라
보는 인간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실패를 깨닫고 대신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완성의 세계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성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함만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 안의 세

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의 세계
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고 완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에서는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감추어진 신
비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에스겔이 본 새로운
성전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의 세계는 애당초 인간의 힘으로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에스겔도 자신
이 성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그를 데리고 예루살
렘 땅으로 가서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고 천
사가 그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에스겔은 다만 이끌려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의 내막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계 21:15-17절을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갑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
와 너비가 같은자라 그 갑대 자로 그 성을 측
량하니 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백사십사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 21:10절을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
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계21장에 등장하는 성의 측량은 하늘
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측량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의미합
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의미하
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측량을 천사의
측량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 세워진 교
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세워지고 완성된 참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측량된 이 성의 사방이 오백척이
라고 하는데 계시록에서는 만 이천 스다디온이
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2,200킬로미터로 번역하였습니다. 어차피 실제
로 존재하는 성전을 측량한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에스겔과 계시록의 서로 다른 크기에 대해
서는 관심 둘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생각할 것은 계시록에서 측량한 것처럼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만 이천 스다디온이 되
는 성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
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 세계와 어긋나는 비현
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세
우시고 완성하신 참된 성전의 세계라고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20절에서 언급된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는
말씀은 비현실과 현실로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은 현실의
시각으로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는 비현실의 세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눈에 보이고 알 수 있으며 얼마든지 이해
가 되는 현실의 세계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의 새로운 성전과 연
결되어 있는 요한 계시록의 거룩한 성은 그리
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교
회는 비현실적 세계를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
면 현실적 세계를 살아가는 것일까요? 답은 당
연히 비현실적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매이고 현실 속에서 인정받는 가치 있는 교회
로 세워지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세
우는 교회 아닌 교회일 뿐입니다.

성전 측량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일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끝날 까지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즉 그리스도의 신부된 몸 된 교회를 세상 끝날 까지 불드시고 지키셨다가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 는 영광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 된 교회는 참된 영광을 알고 소망하기에 세상을 현실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한 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되 세상이 비현실로 치부하는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교회의 교회됨이 증거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 에서 보면 현대 교회는 세상과 같은 길에서 세 상이 인정하는 종교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완성하신 몸 된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담이 되게 하셔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 담이 라면 그 담은 거룩의 세계를 보호함과 동시에 속된 것이 거룩을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 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 측량된 거룩한 성 의 규모에서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성의 길이와 폭과 높이가 각각 일만 이천 스다디온 이고 성벽이 백사십사 규빗(약 65미터)라면 누 구도 성문이 열리지 않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성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계 21:26-27절에서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 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 가리라”** 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은 개인의 공로나 업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 기도 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부르심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 된 자들에게서는 자기 공로와 업적을 내세우는 자량이 없습니다. 다만 죄인 된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신 어린양의 피로 인해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구나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죄인임을 알고 뺏속까지 죄로 가득한 자신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자각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의로움만 높이는 것이 곧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부인된 자가 아 니고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백성을 자기부인이라는 방향으로 끌어가십니다. 결코 세상에서의 영광과 자랑으로 끌여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택과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의 자정하심에 붙들린 신자의 인생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인생을 바라고 신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세상에서의 자기 현실에 집착할 뿐입니다. 이러한 세상에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거부의 대상 일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말은 하지만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영광은 자신이 잘 되고 나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현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 사고에 붙들려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속된 것입니다.

계 21:22-23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

심아라'고 말합니다.

성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당연히 성전이 있어야 하는데 성전이 없다는 것은 어란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행한 그 어떤 일도 거룩한 성으로부터 거부된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란 양이 성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어란 양이 빛이시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도 쓸 데 없는 세계인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빛의 행함이라며 내어 놓겠습니까? 다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만 높이고 자랑할 뿐입니다.

에스겔이 본 새로운 성전에 솔로몬 성전의 것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에서 사람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의 실패를 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

실패한 인간이 성전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어란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 거룩한 자리에 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며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기 고집으로 내가 원한 길로만 가려고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 없이 세상만을 현실로 여기고 살아온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내세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를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해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 자체를 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즉 신자 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믿음과 사탄

대상 21:1

믿음 86강 10. 16일 설교

본문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성경에 사탄이 등장하는 것은 사탄이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실재하는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실재한다면 신자는 사탄이란 존재에 대해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의 믿음이 가능한 것처럼 사탄의 존재에 대해 바른 이해가 있어야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는 죽은 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대 교회는 하나님에 대

한 개념이 크게 오해되고 있는 것처럼 사탄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신관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활동인 것처럼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왜곡된 개념을 갖게 함으로서 무엇보다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것은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죄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배운 것이 죄에 대한 것이고 훈련 받은 것이 나쁜 짓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배우고 습득하게 되는 죄는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도덕적 삶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고 말합니다. 사탄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계수하도록 충동 했다는 것인데, 이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것이 곧 사탄의 충동을 따르는 죄라는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것은 백성의 수를 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 왜 사탄의 충동을 따르는 죄가 되는 것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얼마든지 백성의 수를 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백성의 수를 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백성의 수를 세도록 충동하는 의미에 있습니다.

대상 21:5절에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벨 만한 자가 백십만 명이고 유다 중에 칼을 벨 만한 자가 사십칠만 명이라”** 고 말합니다. 단지 백성의 수효를 세는 것이 아니라 칼을 벨 만한 자,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충동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한 것은 사탄의 충동을 따른 것이고 따라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계수한 것이 단지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군사의 수를 세는 것이라 해도 세상의 시각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당연히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현대 교회가 교인 수를 세는 것을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인 수를 세는 것을 ‘죄다 죄가 아니다’ 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법을 세우는 것이고 교인의 수를 세지 않는 것을 교회다운 것으로 여긴다면 교인 수를 세지 않는 교회는 ‘우리는 교회답다’ 라는 자량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수를 세지 않는 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비난의 이유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라는 광고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의 당회장이라는 권한으로 인해 여러 폐해가 발생할 때 당회장을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도 하는 것으로 규약을 정함으로 마치 개혁을 추구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충동에 따른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탄의 충동은 하나님이나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교회를 보게 합니다. 죄의 세력에 붙들린 죽음의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의가 되어 거룩한 자로 여김 받게 하였음을 믿는다면 끝까지 은혜에 붙들린 자로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의가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행한다 해도 그것이 자신의 의의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다 해서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장로도 당회장을 하는 것으로 규약을 정함으로 목사의 권위를 제지한다 해도 그것이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교회다운 것으로 여긴다면 그리스도가 의

로움이 됨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사탄의 충동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는 죄의 기준을 행함에 두고 규정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인답게 행한 것이 선한 것이고 신앙인답지 않은 것을 죄로 규정합니다. 그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할 죄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충동을 따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의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행동을 한다 해도 그로 인해 자욱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용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의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단절되는 것이 곧 죽음에 이르는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의도, 충동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은혜에서 멀어지고 단절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칠만 명이었더라”** 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한 일로 인해 전염병으로 백성 칠만 명을 죽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한 것이야 말로 심판을 받아야 할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계수는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힘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고 정치를 잘했고 많은 업적을 세웠다는 자기 확인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 과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된 은혜와 상판

없는 모습입니다.

대상 21:7,8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다윗이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회개합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다면 끝까지 자신의 죄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다윗이 왜 사탄의 충동을 따랐을까요? 우리가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언제나 자신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성 자체가 자기를 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충동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죄를 범하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일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라면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따를 때 막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듣고서도 자기 행동을 간파하지 못하고 사탄의 충동을 따를 때 가만히 계셨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를 범함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할 수 없음을 배우는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을 계수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충동을 따르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왕이라는 생각에 불들려서 왕으로서의 자기 업적을 확인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다윗이 사탄의 충동에 의해 이스라엘을 계수한 이야기는 다윗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탄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두 세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드러나고 확증된 은혜의 세계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인정되고 드러나는 것을 인생의 의미로 여기는 사탄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창 3: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세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충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확인하고 자신이 인정되는 것만큼 뿌듯하고 즐거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사탄의 충동을 따라 삽니다. 이런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하신 덕분인 것입니다.

세상은 사탄의 충동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세상을 사탄의 충동 아래 두시고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충동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탄이 충동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나고 증거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충동 속에서도 복음을 듣게 되는 백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사탄의 충동 속에서도 복음을 듣는 백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권능으로 활동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께 복음을 듣는 귀를 주심으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존재하게 한다는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 곧 사탄이 충동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곧 하나님의 증거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위로

창 50:19-21

123강 2016. 11. 2일 설교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랴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람은 세 가지를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수와 부와 함께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복수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3대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멸하고 싶은 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고 욕구이기도 하기에 원수 관계에 있는 상대 또한 자신을 해할 것으로 짐작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아들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아담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행으로 인해 미움을 받고 보복 받을 것을 두려

워 했습니다. 그들은 야곱을 요셉의 보복으로 부터 보호해줄 유일한 존재로 여겼는데 야곱이 죽고 사라지자 요셉의 보복을 막아 줄 방패가 없다는 생각으로 불안해 한 것입니다.

이들은 요셉이 그동안 야곱 때문에 자신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요셉에 대한 오해일 뿐입니다. 요셉은 야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보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복을 하고 싶은 데 참은 것이 아니라 아예 보복이라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형제들의 악행으로 애굽에 팔렸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으로 먼저 보낸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미워하고 악으로 갚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을 요셉과 같은 시각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도 형제들의 악행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지극히 세속적 시각으로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까? 당연히 미움이 생기고 악으로 갚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전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누군가가 자신을 비난할 때 그것을 자신을 보게 하는

기회로 여길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 깊이 몰입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하기에 미워하고 악으로 갚을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20-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 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한 일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요셉에게 행한 형제들의 악한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일이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야곱 아들들의 행위는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야곱의 아들들이 한 일은 잘한 일일까요?

이러한 의미로 생각하게 되면 결국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결과적으로 선한 일이라는 결론이 됩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들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논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신자는 안심하고 악을 행해도 되는 것일까요?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이니까 자신의 악한 일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도구로 사용하여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우리의 악함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악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기에 특별히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자신을 악인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아들들의 시각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에서 이미 악함이 드러납니다. 나를 미워하고 악으로 갚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것도 죄의 모습이고 보복하고자 하는 것도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행복으로만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악함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악함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악함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아가는 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생명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되어 집니다. 생명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용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악함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조정하지도 묵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심판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을 바꾸어서 용서의 은혜를 배우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간곡한 말로 형제를 위로하였습니다. 요셉의 위로는 단지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형제들을 사랑으로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신자가 받는 위로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

인 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위로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바꾸어 생명을 구원하시는 크신 사랑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들처럼 자신의 행위가 미움과 악으로 갚아질 것을 염려한다면 당연히 위로는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불안과 염려에 붙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미움 받고 벌 받을 것을 예상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악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길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의 악을 도구 삼아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악에 대해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시각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해가 되고 고통이 되는 일들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는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모든 일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신자에게 모든 일에서 사랑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신자에게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일 뿐입니다.

교회소식

1. 예배 후에 제직회 있습니다.
2. 박종호 성도, 최두임 권사의 장녀 박미란 양의 결혼식이 19일 오전 11:30분에 노비아빌라 2층 그랜드 홀에서 있습니다. (동구 동춘로 91)
3. 신윤식 목사의 설교가 미국 BBN에서 14-19일까지 한국 시간으로 오전 오후 9시에 방송됩니다. 방송을 들으시려면 구글 스토어에서 BBN라디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고정 프로그램으로 편성되면 매일 방송 되는데 그 전까지는 한 달에 한 주간 방송될 예정입니다.
4. 예배당 와이파이 비번을 1층과 3층에 게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근초(서양등골나물)

예배시간안내

예배모임	예배시간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2:30
수요일	7:30
주일학교	1:00

주일오전예배

11:00 인도 : 신윤식 목사

독상기도 다 할 깨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40장
 교 독 문 54(시126편)
 기 도 이성희 장로
 찬 송 549장
 성경봉독 겔 42:15-20
● 축량을 마치다(101강) ●
 기 도 설 교 자
 찬 송 210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6장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 이영민 장로

주일오후예배

14:30 인도 :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491장
 기 도 김옥자 집사
 찬 송 533장
 성경봉독 요 17:1-3

● 믿음과 영생(민음89강) ●

기 도 설 교 자
 찬 송 287장
 주기도문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 박영선 집사

수요일예배

19:30 인도 : 신윤식 목사

창세기 강해 124강